

# 09

## 부산 탁구 협회

부산탁구협회는 1963년 경상남도탁구협회에서 분리 독립해 설립됐다. 역대 회장직은 왕상은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허종현, 최주남, 최정환, 이종균, 박두만, 장춘길, 김병환 그리고 현 은산해운항공 대표 양재생 회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부산탁구협회는 최정환 회장 재임 당시인 1978년 부산코카콜라 여자탁구팀을 창단하면서 국내 탁구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 탁구는 86아시아경기대회 남자단체전에 서 부산 출신의 안재형(부산광성공고 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유남규(당시 부산광성공고 3학년 재학 중) 선수가 남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이어 2년 뒤, 탁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88올림픽대회에서는 부산 출신의 유남규(현 국가대표 팀 감독) 선수와 현정화(현 마사회 탁구팀 감독) 선수가 각각 남자단식 금메달,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을 한국 탁구의 메카로 만들었다. 이후에도 유남규, 현정화 선수는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부산 탁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현정화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 등 전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진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정화 선수만이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부산 여자탁구는 저출산, 운동 기피현상과 맞물려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산코카콜라 여자탁구팀을 비롯한 여고팀들의 잇단 해체 등으로 현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탁구팀 또한 2001년 안재형, 유남규 선수 외에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던 영선 초등학교의 폐교와 선수들의 잦은 팀 이동으로 경기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재생 회장의 연임 체제 아래 2013년 부산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부산 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부산탁구협회에는 초·중·고·대학부를 포함해 총 9개 팀에서 50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 현직 회장

-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대표이사
- 2002.0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물자수송 공로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 2005.11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마케팅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 2005, 2008  
한국물류대상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 2007.12  
무역의 날 포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 주요 연표

연도	내용
1963	부산시탁구협회 창설
1978	부산코카콜라 여자탁구단 창단
1986	86아시아경기대회 남자단식 금메달(유남규)
1988	88올림픽대회 남자단식 금메달(유남규)
1988	88올림픽대회 남자복식 동메달(안재형, 유남규)
1988	88올림픽대회 여자복식 금메달(현정화)
1990	국제교류(일본 시모노세키)

### 역대 회장

제1대	왕상은	
제2대	허종현	
제3대	최주남	
제4대	최정환	1976.01~1998.04
제5대	이종균	1998.05~2000.12
제6대	박두만	2000.12~2004.06
제7대	장춘길	2004.06~2009.01
제8대	김병환	2009.01~2011.02
제9대	양재생	2011.02~현재

###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양재생	(주)은산해운항공 대표
부회장	정성열	(주)모닝텍 전무이사
전무이사	배중환	장안고등학교 교사
	안경철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5/23	3/18	2/14	2/13	2/13	2/8
2008	12/74	3/18	3/18	2/15	2/13	2/10
2009	10/58	4/15	2/13	2/15	2/15	0/0
2010	14/68	5/15	3/14	2/14	2/16	2/9
2011	13/73	4/21	3/16	2/12	2/16	2/8
2012	14/66	5/23	3/12	2/10	2/12	2/9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2(655)	0/0/2	11(129)	4(525)	15(0)
2008	9(923)	1/1/0	5(425)	5(498)	14(0)
2009	13(264)	0/0/0	5(132)	9(0)	5(0)
2010	12(521)	0/1/0	9(132)	7(389)	-
2011	9(913)	1/0/0	7(264)	4(649)	0(0)
2012	9(945)	2/1/0	6(333)	4(612)	12(0)



# 10 부산 핸드볼 협회

부산핸드볼협회는 1963년 3월에 창립됐다. 당시의 핸드볼은 현재의 7인제보다는 11인제 경기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송구(送球)'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창립 후 부산송구협회는 사내 초·중·고·전문대학 등 학교 팀을 중심으로 11인제 송구 선수들을 양성하면서 차츰 오늘날의 부산핸드볼협회로 발전했다.

창립 초창기의 조직이나 사무실 위치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65년 3월에는 11인제 대회인 제1회 춘계 송구협회장기 송구대회를 개최했으며, 국제대회에서 11인제 경기가 차츰 쇠퇴해감에 따라 1975년 9월부터는 7인제 대회 중심의 제1회 부산시핸드볼협회 추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부산의 핸드볼 중흥은 남자 고등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아고 남자 핸드볼팀은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체육대회 3연패, 전국대회 전승 2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5연패 등의 금자탑을 쌓았고,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상(고등부 단체경기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남녀 핸드볼은 88올림픽대회를 전후해 세계 정상급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은 이상효(현 낙동고 교사·부산핸드볼협회 이사), 김갑숙, 허순영(현 인지중 지도자) 등의 메달리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부산의 핸드볼을 전국 최정상급으로 발돋움시키는 한편,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대회를 제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김갑숙 시설공단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코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공헌했다.

이후 부산의 핸드볼은 다소 침체를 겪었으나 성지초의 201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만덕중의 전국대회 상위 입상, 여자 실업팀인 부산시설관리공단팀의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등 각급 팀들이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다소 침체를 겪고 있는 여자 고등부도 재송초와 인지중에서 배출한 우수 자원을 바탕으로 백양고 여자팀이 창단 과정에 있어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

현재 부산핸드볼협회에는 부산대 남자팀과 부산시설관리공단 여자 실업팀을 비롯 초·중·고 각급 학교팀 등 총 9개, 90여 명의 선수가 등록, 활동하고 있다.

현직 회장

**허용도**  
(주)태웅 대표이사  
- 1974~1975 김해 대사초등학교 교사  
- 1995 한국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부산시연맹 회장  
- 2009.05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2012.03 부산무역상사협의회 회장

역대 회장

제1대	권순찬	
제2대	최두고	1964.01~1964.12
제3대	김장성	1964.01~1968.12
제4대	이강용	1968.01~1971.12
제5대	성봉섭	1972.01~1974.12
제6대	조영수	1975.01~1977.12
제7대	이강용	1978.01~1979.12
제8대	이명제	1980.01~1981.12
제9대	김채원	1983.01~1985.12
제10대	이관수	1986.01~1987.12
제11대	조승남	1988.01~1988.12
제12대	김진호	1989.01~1992.03
제13대	오완수	1993.03~1999.02
제14대	김병구	1999.03~2000.06
제15대	서성덕	2000.06~2001.01
제16대	곽정곤	2001.01~2001.12
제17대	오완수	2002.01
제18대	김승영	2002~2008.12
제19대	유재순	2008.12~2013.01
제20대	허용도	2013.01~현재